

# 예산·檢개혁법·필리버스터 극한 대치

## 與, '4+1' 공조 카드로 패스트트랙 관철 의지 한국당, 배수진 치고 '필사 저지' 역풍 우려도

내년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상정이 임박한 1일 국회에 전문이 갈고름과 있다.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고 패스트트랙 법안 중 검찰개혁 법안도 이들 뒤 본회의에 부의되는 만큼 여야는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놓고 전면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제1야당 자유한국당의 지난달 29일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기습 선언으로 패스트트랙 법안과 예산안 등의 일괄 처리가 어려워지면서 정국은 그야말로 '시계제표' 상태다.

스트트랙 공조에 당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때 예산안과 함께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하되, 안건별로 짧은 회기의 임시국회를 여러 번 열어 법안을 순차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회법상 법정 처리시한인 2일 이후 본회의에서는 예산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불가능해 예산안 처리에 큰 문제는 없다.

필리버스터 카드로 선제공격에 나선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을 저지

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 중이다.

일단 한국당은 지난달 29일 본회의의 개회가 무산된 이후 '하루빨리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을 처리하자'는 주장을 전면으로 내세웠다. '민생을 불모로 한 필리버스터'라는 비판 여론에서 벗어남으로써 필리버스터 장기전의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여당이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 처리를 민생법안보다 우선해 처리하려는 모습을 보일 경우 역풍이 휩쓸릴 것이라는 게 한국당의 판단이다.

이런 가운데 '패스트트랙 대전'의 여파로 내년도 예산안의 제때 처리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이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 심사 기한은 전날, 즉 11월 30일이

었다. 국회법 규정을 적용한다면 정부가 제출한 513조5천억원 규모의 예산안 원안이 12월1일 0시 본회의의 안건으로 자동 부의된다.

일단 김재원 예결위원장도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예결위 활동시한 연장'을 요청한 상태다. 또한 여야 3당 간사가 밀도 있는 심사를 위해 꾸린 '3당 간사협의체'도 가동 중이다.

문제는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로 '패스트트랙 대전'의 막이 오른 가운데 여야 합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각 당이 패스트트랙 법안과 예산안을 연계해 원내 전략을 모색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이 한국당을 배제한 채 나머지 야당과 협의해 예산안을 처리할 가능성도 일각에서 거론된다. /연합뉴스



무거운 적막감에 쌓인 국회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기습 선언으로 패스트트랙 법안과 예산안 등의 일괄 처리가 어려워진 가운데 1일 오후 교통표지판 너머로 국회 본관이 무거운 적막감으로 쌓여있는 듯하다. /연합뉴스

# 이번주 개각(?)...총리 김진표·법무장관 추미애 낙점

## 필리버스터 변수 속 법무 먼저 발표할수도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주 차기 총리와 법무부 장관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총리의 뒤를 이을 후임 총리 후보로는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유력하며, 법무부 장관 후보로는 같은 당 추미애 의원이 검증에 마무리 짓고 사실상 확정 단계라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김 의원은 참여정부 당시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를 지낸 4선 의원으로 '경제총리'를 세우 집권 중반기 국정운영에 힘을 싣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판사 출신인 추 의원은 개혁 성향이 강한 5선 의원으로, 민주당에서는 검찰 개혁에 힘을 실을 수 있는 인사라는 점에서 추 의원을 청와대에 추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인사 시기와 관련, 자유한국당이 29일 본회의를 앞두고 무제한 토론인 필

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하는 등 국회가 파행 조짐을 보이는 점이 개각 시기에 변수로 작용하리라는 전망이 나온다.

예조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비롯한 검찰개혁 법안의 부의 시점이 3일(화요일) 부의·처리되는 것을 전제로 추 후반기 개각을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그러나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결정으로 국회 의사일정 전체가 안갯속으로 빠져들면서 이번 개각 시기에도 불확실성

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아무래도 여야가 한창 대치 중인 가운데 국무총리 교체 강행하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 있다"며 국회 상황에 따라 발표가 다소 늦춰질 가능성을 거론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공식인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내주 '원포인트'로 먼저 발표하고, 총리후보자의 경우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이후에 발표하는 방식의 '순차개각'도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연합뉴스

# 與 '하위 20%'의원에 사전통보 방침

## 전체 공개 검토했다 변경...불필요한 논란 차단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진행하는 현역 국회의원 평가에서 하위 20%에 속한 의원 본인에게 그 결과를 사전 통보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일반에 하위 20% 명단을 공개했을 경우 생길 수 있는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면서 공천 경선에서 20% 감산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 자연스럽게 불출마를 유도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당 핵심 관계자는 1일 "국회의원 평가에서 하위 20% 명단이 나오면 이를 본인에게 먼저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당헌·당규에 따라 자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 임기 중 직무 수행 평가를 진행해 그 결과를 공천에 활용하고 있다. 현재는 다면 평가와 여론조사 등을 통해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최종 평가를 진행 중으로, 이전에 진행했던 중간평가를 합산해 최종 결과를 내달 하순께 확정한다.

여기에서 하위 20%에 들어가게 되면 공천 경선에서 본인 득점의 20%를 감산하는 페널티를 받는다. 민주당은 현역 국회의원이 총선 공천장을 획득하려면 무조건 경선을 하도록 의무화한 상태다.

민주당은 애초 평가 결과 전체를 일반에 공개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했다. 그러나 이 경우 '망신 주기', '찍어내기' 등의 비판과 함께 탈당 사태도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공천관리위원회가 내년 1월께 미리 본인에게 알려주는 형식을 취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 과정을 통해 추가로 불출마자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당 핵심관계자는 "본인에게 통보가 되면 본인 스스로 결단하는 분들이 더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경선 경쟁후보가 공천 가점 대상인 여성, 청년, 정치신인일 경우 더 확실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당은 보고 있다.

다른 관계자는 "후배가 자기보다 더 경쟁력이 있다는 생각이 들면 스스로 더 판단할 여지가 있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현재 민주당 소속 의원은 129명으로 이중 118명이 이번 평가 대상이다. 이해찬 대표를 포함해 9명은 불출마 의향서를 제출했으며, 최근 입당한 손금주 의원과 비례대표직을 승계한 정은혜 의원은 여기사 빠졌다. 이에 따라 현재 시점 기준 무조건 경선을 하도록 의무화한 상태다. /김진기차

# 윤영덕 "자유한국당, 민생인질극 당장 멈추라"

## 민생 불모로 한 필리버스터 "명분 잃은 폭주" 비판

윤영덕(사진)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은 30일 논평을 내고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방침에 대해 "민생 인질극을 당장 멈추라"고 주장했다.

윤 전 행정관은 논평에서 "우리 정치사에서 이처럼 대놓고, 무턱대고, '민생 인질극'을 벌인 정치집단은 없었다"며 "자유한국당의 존재는 한국 정치의 오점이자, 비극"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 전 행정관은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로 국회 본회의의 통과가 불투명해진 민식이법을 예로 들며 "여섯 명의 아이를 잃은 부모들이 국회 복도에서 무릎 꿇고 눈물로 호소했지만 그 눈물을 닦아줘

야 할 정치가 부모들의 무릎을 밟고 지나갔다"면서 "과속 카메라로, 빨간 신호등으로, 단속하고 멈춰 세워야 할 것은 정신줄을 놓고 제 케도를 잃은 채 폭주하는 자유한국당"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역대 최악의 법안 통과율을 기록한 20대 국회의 회기가 열흘 남았고 198개 법안을 버락치기로 처리하기에도 빠듯한 시간"이라며 "자유한국당은 필리버스터 '민생 인질극'을 지금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김대기차



## '단식 종료' 황교안 당무복귀

단식농성을 종료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오는 2일 당무에 복귀한다.

한국당 대표실은 1일 기자들에게 "황 대표가 내일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공지했다.

황 대표는 단식을 마치고 나서 아직 건강이 완전히 회복하지는 않았지만, 현재의 엄중한 국회 상황 등을 감안해 당무 복귀를 서둘렀다고 한국당은 설명했다.

한국당은 "황 대표는 내일 최고위를 시작으로 정상적으로 당무를 처리해 나갈 예정"이라며 "무엇보다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법),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저지, 친문(친문재인) 농단 게이트' 진상 규명을 위해 더욱 총력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황 대표는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제 등의 폐기를 촉구하며 지난달 20일 단식에 돌입, 8일 동안 청와대 앞에서 '노숙농성'을 벌이다가 의식을 잃고 병원에 이송돼 29일 단식을 끝냈다. /연합뉴스

## 오천경매

투자제 관한 모든 상담 010-3605-5000

# 경매투자자

오천경매 010-3605-5000

## 고층빌딩(급) 처분!

금남로 대로변  
중심상업지역 대지657㎡  
연면적 7,470㎡ 승강기2대 주차86대  
보10억 월6,000만원가능

\*\*\*월세 임대용 최적,  
다용도빌딩으로도 적합  
==최고입지,최고상권,완벽한 건축물임  
급처분가:상담 후 결정

\*\*\*상가빌딩, 모텔, 가든, 나대지  
지방, 섬땅등 투자 손님 다수 대기중입니다  
연락주시면 바로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김재현 즐거운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 유재관 010-6495-3787  
광주 북구 임동480 내주공아파트 옆 동운고가입구

## 현대공인중개사

치평동 상무우리병원에서 50m  
☎ 370-1900 ☑ 010-2006-0115

〈광주 인근 지역 매매 물건 구함〉

(장성 담양 나주 화순 함평 곡성)  
물건의 종류 : 건물 / 대지 / 임야 / 전답 / 기타

〈광주 지역 매매 임대 물건 구함〉

물건의 종류 : 건물 / 토지

〈급매물 단 시일 내 책임중개〉

대표 공인중개사 김학제